



정교회주보

제2467호

2024.04.07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14> 성 바울로 수도원(사진)은 성산의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다. 수도원에는 12개의 성당이 있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당은 크레타 예술의 벽화가 그려진 성 게오르기오스 성당이다. 도서관에는 494권의 사본과 12,500여 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수많은 성물이 보존되어 있다. 1108년에 성 바울로 수도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순절 제 3주일
(십자가 경배 주일)
성 칼리오庇오스 순교자
(제3조 • 조과 복음 11)

- * 조과-찬양되시는 주여' 부르지 않음.
- * 대영광송 다음 '십자가 경배 의식' - 231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제3조 부활 찬양송	82
십자가 경배 찬양송	230
성당 찬양송	
사순절 시기송	223
'삼성송' 대신에	230
사도경 : 히브리 4,14~5,6	230
복음경 : 마르코 8,34~9,1	139
성모송	62
'우리가 참 빛을' 대신에 '십자가 경배 찬양송'	230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가장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우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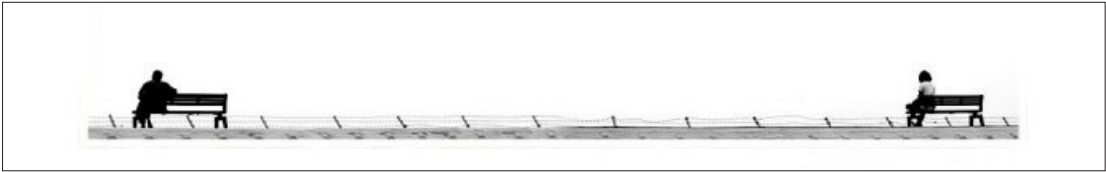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것은 그분이 가시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곁에 바짝 달라붙어서 가는 것입니다. 더 앞서가려고 하지 않고 더 빨리 가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 뒤에서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에도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잘못을 용서하다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하루는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충분합니까?” 주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는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마태오 18,21-22)

숫자 7은 성서적으로 완전 숫자이다. 따라서 일흔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의 완전을 의미하기에 용서하는 마음에서도 조금의 미진함도 없는 완전한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기도문에 기록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구절에서 ‘잘못’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빚을 의미한다. 무자비한 종의 이야기에서, 왕으로부터 일만 달란트라는 셀 수도 없을 만큼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은 백 데나리온이라는 작은 금액을 꾸어간 친구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먹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못된 종을 다시 불러 “이 악한 종아, 네가 간청하기에 나는 모든 빚을 탕감해주었는데 너는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라면서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마태오 18,24-34 참조)

우리에게 빚진 사람이 있으면 탕감해주어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채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을 도와줄 때는 받을 생각 말고 내어줌으로써 탕감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관계가 되어야 비로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나의 부채를 주님으로부터 탕감받고 깨끗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잘못’이라는 단어 말뜻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각자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자녀, 친구, 이웃 그리고 민족 간에 책임과 의무를 서로 다할 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죄를 뜻한다. 죄는 내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벌어지는 것이다. 아담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영원한 생명을 잃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는 나의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며 회개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잘못을 용서한다는 의미는 여러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잘못을 서로 용서받고 용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관계에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신 주님께 내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생각하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하겠다.

대 사순절 기간의 유혹과 어려움

성 요셉 헤지카스트(1897-1959)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끝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악마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극도로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더욱더 싸움을 걸어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대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면 사악한 악마들에 의해서 우리를 무너트리려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때 기도와 금식으로써 악마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악마들은 노하고 우리를 향해 더욱 극심하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의 영적인 시험과 수련의 과정 속에서 승리의 관을 쓸수 있도록 더욱 많이 신경을 쓰면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용감해야 합니다.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나란히 서서 힘을 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은 하느님께서로부터 왔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겨냈으며,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은 세상에 와 있는 그 적대자보다 더 위대하”(요한 1서 4,4)시기 때문입니다.

* 성 요셉 헤지카스트 :

성인은 1897년 2월 12일에 그리스의 에게해에 있는 섬 파로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성인의 부모는 게오르기오스와 마리아였고, 일곱 자녀 가운데서 셋째였다. 성인이 어린아이였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으며, 어머니 홀로 남은 가족들을 돌보아야 했다.

성인은 십대까지 마을에 머물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하며 어머니를 도왔다. 학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다. 그리스 해군에서 복무했으며, 23세 무렵에는 피레아 항구와 아테네에서 노점상을 하였다.

아테네에 있으면서 교회의 성인들과 금욕가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 시작한 성인은 그 뒤 아토스 성산으로 가서 수도사가 되었고 1959년 8월 15일에 안식하였다.

2020년 3월 9일 세계 총대주교청의 거룩한 시노드는 성인을 정교회의 성인 명단에 올리도록 결정하고 공표하였다.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와
- * 수요일(4/10)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금요일(4/12) 오후 6시
성모 기립 찬양 (4 스타시스)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소 식

■ 오늘은 십자가 경배 주일입니다

사순절 여정의 한가운데 있는 주일로, 금식과 예배와 기도 로 영적 투쟁을 하는 우리에게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남 은 시간을 잘 이어나가게 하여 주님의 수난과 영광스러운 부 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십자가의 축복으로 사순절을 잘 보내고 성 대 주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용미리 교회 묘지 청소

지난 30일(토), 한식을 앞두고 서울 성당 신자들이 용미리 구세주 부활 성당과 묘지 청소를 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세월호 가족들과의 만남

지난 1일(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와 엘레니 조혜원 교우는 안산시를 방문하여 세월호 참 사 피해자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면 서, 우리 교회에서도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회적 정의 를 위해 힘을 보탬 것을 약속했습니다.

■ 서울 성당 꽃 심기

다음 주일(14일), 점심식사 이후 부활절 맞이 꽃 심기를 합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가르침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사부가 이렇게 조언했다.

“방문객들이 그대를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하느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리라.

‘주여, 우리 모두를 비난과 험담에서 보호하소서.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형제들이 이곳에서 평화와 유익을 얻 고 떠나게 하소서.’”

